

비선라인 · 청탁... 더럽혀진 전주시 정기인사

민선6기 '구태 극복' 과제 시급... 공무원노조 등 시 산하직원 투명한 인사 절실

전주시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정치권을 동원한 인사청탁이 조직의 근간을 흐트러뜨릴 정도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등 일부 공무원들은, 김승수 시장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시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직 K국회의원의 입김이 시 인사권이 휘둘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각계 외부인사들을 앞세운 인사개입 정도가 도를 넘다보니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자괴감과 한숨섞인 탄식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외부 청탁은 민선6기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두차례 있었던 지난 5차례의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한번도 잡음없이 지나쳐온

적이 없을 정도로 '빱'이 난무했고 실제로 승진이 이뤄졌다.

그러자 최근 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인사에 간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청탁한 시의원들 및 외부인사들의 명단 공개와 함께 그들을 앞세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전주시가 시의원들의 인사청탁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여 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시말해서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에 집행부가 인사청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끌어 오는 '잘못된 민남'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S의원의 경우 예산, 인사, 공

사 등 개입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어 최근 도의회 K의원 구속 과정에서 S의원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정도였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역대시장을 3번째 겪어보지만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인사기준이 '능력'과 '연공서열'보다는 '학연이나 배경'이 최우한다고 비난했다.

한 예로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그동안 승진과 노른자보직을 얻기위해 시의원, 국회의원 등을 동원했으며 A씨가 발령받아 근무하는 부서마다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들로 마찰을 일으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A씨는 본인이 종종 K국회의원이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위세를 부려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

는가 하면 묵묵히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암묵적인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국장급 서기관 승진 4자리 가운데 2자리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의 입김이 작용한 사무관이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번지면서 인공 서열과 전문성이 무시된채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이같은 외부청탁 현상이 실제 인사에 굴복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서 선량한 전주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뢰를 주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2017년에는 전주시장의 소신있는 인사와 결단력있는 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공무원 P씨는 "외압과 청탁에 굴복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서 선량한 전주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뢰를 주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2017년에는 전주시장의 소신있는 인사와 결단력있는 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 첫 일제 음주단속 23명 적발

전북경찰이 올해 처음 실시한 일제 음주단속에서 무려 23명의 만취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저녁 8시부터 7시간 동안 380명의 인력을 동원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자 10명과 절지 수준의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익산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계속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6일 올해 사단법인 체제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법인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 주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출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식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주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6일 올해 사단법인 체제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법인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특히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출범식 기념행사에 앞서 공식적인 첫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배달을 실시해 의미를 더했다.

센터 임직원들은 지역의 독지가들로부터 기부 받은 2017장의 연탄을 스마일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대학생 봉사자 등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어진 출범식 기념행사에서 제막식과 기념식수 등이 진행됐으며,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법인 깃발을 전수받은 황의욱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설립 후 18년이 지난 현재 전주시가 대한

민국의 자원봉사 일등도시로 평가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황의욱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원봉사는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가 됐다"면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전개 등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 자원봉사 일등도시 전주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경찰관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

현직의 경찰관이 빙판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6시38분경 전북 임실군 성수면 근방의 한 도로변에서 남원경찰서 소속의 류모(36)경사의 승용차량이 180도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난 차량 운전석에는 류 경사가 많은 피를 흘린상태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삼천, 수달들이 뛰놀기 좋게

전주시, 삼천 생태하천 복원에 47억원 확보 섬 형태 인공보금자리 · 생태수로 등 조성키로

전주시가 대표적인 생태공간인 삼천을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한다.



전주시는 올해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4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서신동 삼천·전주천 합류점 인근에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인공보금자리와 생태수로, 생태탐방로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평화2동 원당교에서 서신동 전주천합류점까지 9.8km 구간의 삼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사업 핵심구간인 수달보금자리 조성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관련 전문가와 생태하천협의회 등 관련 NGO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낱씨가 풀리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전주천 합류부 인근에 외부로부터 간섭이 적은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시는 수달이 주로 물머리와 나무더미 근처에서 은신해 생활하는 만큼, 수달보금자리 주변에 물머더기와 수로형 습지, 초

지군락 등을 만들기로 했다. 섬 아래쪽에는 수로형 습지와 삼천을 연결하는 생태수로를 설치해 수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달보금자리 주변 홍산교에서 금학보 구간에는 생태탐방로를 설치, 단절된 삼천 주변 산책로를 연결키로 했다. 또, 생태탐방로와 수달보금자리 사이에는 수달이 산책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차폐를 위한 수목이 식재된다.

이에 앞서, 시는 삼천을 생태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보 2곳을 철거하고, 1개 보를 개량했다. 또, 삼천 상류에는 반딧불이 서식처를 조성하고 2.1km의 산책로 정비 등을 실시했다.

시는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갖대중 복원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마트에서 흥기 강도행각 벌인 러시아인 2명 징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관)는 6일 마트에서 흥기를 들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21)와 B씨(20)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경 전북 군산시 소재의 한 마트에서 종업원 전모씨(46,여)를 식칼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기지를 발휘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부르고 옆에서 묶고 있던 커피포트의 물을 뿌려 강도를 도망하게 했다.

경찰은 전씨의 신고를 받고 마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를 통해 경기도 이천에서 이들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러시아행 배를 타기 위해 강원도 원주로 향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